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63> 차밭에서

바야흐로 차(茶)의 계절이다. 우리의 햇차는 모두 '우전'을 달고 나온다. '곡우이전'에 잎을 따는 말이다. 한 때는 우전 햇차에 집착했던 시절도 있었다. 뒷날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관념적 사치를 부린 거였다. 이제는 생기는대로 먹는다.

'다선일여(茶禪一如)'에서 보듯 차 마시는 것도 수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차 마시는 일이 호사가의 취미생활에 그친다면 차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명필로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계승은 다선일여 경지를 읊은 명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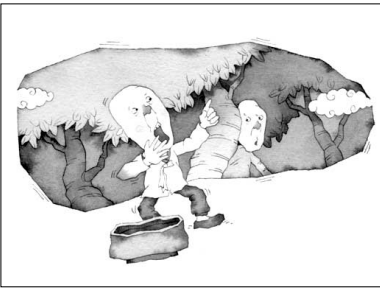
정좌처 다반향초(靜坐處 茶半香初)  
요용시 수류화개(妙用時 水流花開)  
앞의 구는 체(體)를 말하고, 뒤의 것은 용(用)의 경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글썽 깨나 읊을 줄 알면 다 아는 소리다. 문제는 '다반향초(茶半香初)'다. 흔히 '차를 반쯤 마셨는데(혹 반쯤 남았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다'고 한

흐르고 꽃피는 시절인연과 함께 하네.

차밭에서도 체와 용의 법문이 오고 가야만 한다. 그레야 차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따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 버린다. 위산선사와 제자 양산 스님이 차밭에서 나는 대화에서 스승과 제자간의 애뜻함도 함께 묻어낸다. 위산이 차를 따다가 양산을 향해 말했다.

"종일 차를 따도 너의 목소리만 들릴 형체가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본래모습을 보여다오." "씨가 지는 제자는 스승의 말에 냉큼 달려올 일이지 여전히 모습을 숨기고 차나무를 한번 흔들어 보았다. 그만 법답이 되어버렸다. 이에 배알이 틀어진 스승이 법대로 말했다.

"네놈은 용만 얻었지 체는 얻지 못했다."  
그러자 제자 양산은 한술 더떴다.  
"스승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 차밭에서 차 따던 위산 선사와 제자 양산 '體나 용이나' 한바탕 팽팽한 법담

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석연치가 않아 아무리 듣고 생각해보도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문제는 '반(半)'과 '초(初)'라는 글자 의미이다. 때마침 도반의 모임에서 이 말이 나와 각자 한 마디씩 돌아가며 의견을 내놓았다.

"반일(半日)의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나절이라는 말인데. 차를 마신지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향기가 여전히 처음 마실 때와 같다는 뜻으로..."

귀가 시원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반일(半日)이란 전일(全日)이라는 말이니 결국 '영원'이란 뜻이 된다. 초(初)는 일여(一如) 즉 '한결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뒷날 인독이 더 열릴 때까지 이 견해를 함께 하기로 모두 합의했다. 의미가 제대로 통하는 뜻 번역이 있길래 그대로 옮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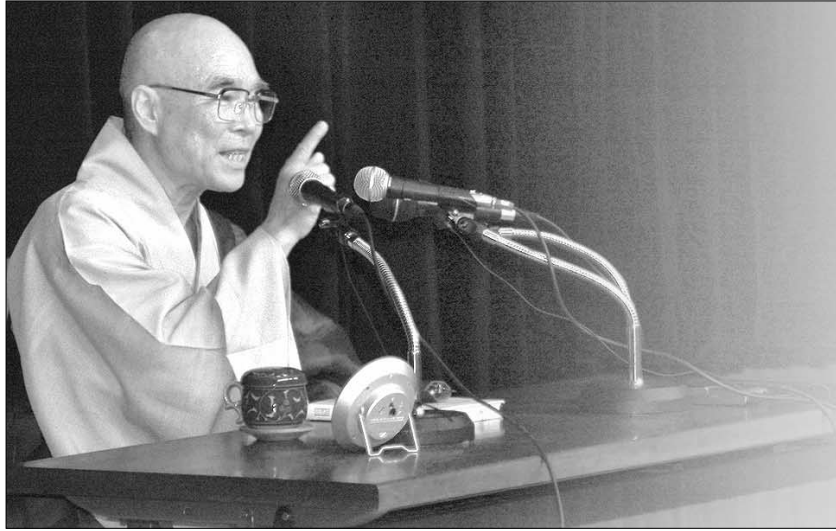
본래심의 경지(靜坐處)에서 차를 마시는 향기는 언제나 처음본래 그 맛

본래심의 미묘한 지혜작용(妙用時)은 물

그러자 선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를 양구(良久)라고 한다. 그러자 간이 배 배에 나온 제자가 한 마디 거들었다. "스승님은 체(體)만 알았지 용(用)은 얻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체와 용으로 한 편씩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차나무는 우리나라처럼 무릎아래에서 따기 좋도록 다듬어진 것이 아니다. 보성차밭을 가보면 차 따는 사람의 허리 위로는 다 보인다. 하지만 중국차밭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을 빌자면 차나무가 말림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스승은 아침에 헤어질 제자가 그 사이에 보고 싶어했던 모양이다. 다정(多情)이 병(病)이다. 그런데 이놈이 그런 마음도 모르고 가르쳐준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그것도 분별심에 분별심을 더하여 엉뚱하게 되풀이된 것이다. 스승의 마지막 한마디는 당연히 몽둥이 짐질이다. "네 이놈에게 30방망이를 때려주리라."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고우 스님이 말하는 '단경'의 가치와 의미

"<육조단경>의 고쟁이는 무아(無我)와 중도(中道)다. 내가 있다'는 이기심으로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 말라.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는 것이 깨침이다. 양변을 여고 마음을 깨닫기 하라. 그럼, 시공과 종교를 초월한 이 존재원리를 체험할 것이다." 각하사선덕 고우 스님은 <단경>의 종지(宗旨)를 이렇게 설명했다. 밝은 지혜로 비추보면, 단박에 존재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불기 2550년 하안거를 맞아 마련한 재가 불자를 위한 <돈황본 육조단경> 대강좌'는 5월 16일 입제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02)733-7277

입제식에서 고우 스님이, <단경>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1시간 넘게 법문한 것을 요약했다.

## '내가 있다' 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 # 깨달음에는 구별이 없다

<단경>에 담겨진 내용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육조 스님이 몸으로 체험해 그것을 밝혀놓았다. 그 체험을 담은 <단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상의 종교,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선적인 처방전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때문에 육조 스님이 발견한 존재원리를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을 체험해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냥 이해하는 것을 정견(正見)이다. 즉 <단경>을 통해 깨달음으로 간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견을 갖춰 생활에 1%든 10%든지 적용한다면, 부처님 법대로 안하면 오히려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육조 스님이 발견한 세계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제

대로 안다면, 이 지구상에 전쟁은 없다.

<단경> 공부에는 출·재가 구분 없다. 육조 스님은 형상, 즉 겉껍데기로 출·재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출·재가를 나눴다. <단경>의 '서언'에 나오는 '비구, 비구니, 도교를 배우는 사람, 재가자, 유교 선비와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대사에서 법을 청했다'는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중국에는 유교, 도교, 불교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말 가운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유교인, 도교인, 비불교인 비신자 재가인도 이 <단경>을 듣게 되면, 종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단경>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있다는 의미와 사실을 담고 있다.

#### # 말하고 듣는 바로 그 존재

여기서 말하는 종지는 무엇이고, 마하반야바라밀법을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존재원리의 내용이다. 존재원리 내용은

무엇인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그 존재원리다. 그래서 만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이 존재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1400년 전의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존재원리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존재원리는 같다.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존재원리는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든다. 회노악락도 과학도 만든다. 마음이 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존재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역기능이 그냥 없어지고 순기능만이 지속된다.

#### # 양변을 여린 깨끗한 마음

<단경>에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하반야바라밀다법을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하반야바라밀다법'과 똑같다. 이기심이 일으키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다. '나다 너다' '옳다 그르

다' '좋다 나쁘다' 등 양변을 여린 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은 무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반야심경>에서 몸과 정신이 공함을 알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있다. 고의 원인은 '내가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새끼와 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뱀으로 봤기에 고행이 시작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끼를 보고 고뇌하다가 밝은 불로 그 새끼를 보면, 정말로 황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새끼를 뱀으로 보는 착각으로 공포심과 중요심이 일어난다. 불을 비추보니 뱀이 아니라 새끼더라. 이것이 깨침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 전쟁 등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이 난다?

### '응무소주이생기심' 어떻게 해석할까 원철 스님, '성철 스님과 <육조단경>' 특강

이날 입제식에는 성철 스님의 제자 원철 스님(백련암 주지)이 참석, 덕이본과 돈황본의 번역상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특강을 했다. 원철 스님은 성철 스님이 강조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예로 들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번역한다는 것. 성철 스님은 이 번역이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성철 스님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이 난다'고 해야 해능 스님의 참뜻과 계합된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원철 스님은 "<단경>의 핵심은 '그 마음을 낸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난다'라는 것이다. '응무소주'와 '이생기심'으로 두 문장에서 나눠 해석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다"라며 "자성을 낸다"고 하면, 그 마음이 객관화되고 자신이 주관화된다. 그 마음은 스스로 저절로 나는 것이다. 내가 있어 마음을 내고 마음을 주관화·객관화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내는 마음'과 '낸 마음'이 들어 된다. '그 마음은 들어 아니다'는 의미다. 이 구절은 '마땅히 머무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관  
전환주제는 본래는 인내 지혜를 배웁니다.

지금이나 말로 당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환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일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3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6년 6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 입 학 금	90,000원(3개월)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본문 법화 의식 대전은**  
(법화 삼부경 위주로 의식을 만듦)

널리 광선 유포 독송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 법화 의식 대전을 구입하시는 사부대중 231명에게 27,500,000원으로 상금을 분할해 드립니다

1등	5백만원	1명
2등	40만원	30명
3등	10만원	50명
4등	5만원	50명
5등	3만원	100명

이상으로 금년 12월경에 231명에게 추천하여 공정하게 상금을 드리오니 많은 동참 바라며 '의식책'을 사시는 분에게 달마, 불·용자 등 50장을 가져 드립니다.

본문법화의식대전

달마, 불·용자, 모두 가로 38cm×세로 54cm

**대한불교 대승연화종 총무원**  
연락처 : (055)772-6662 / H·P 010-8993-1344, 010-6394-7350  
\* 입금계좌번호 : 농협 801076-51-022066 (예금주: 대한불교)

**제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도량성, 첫송, 상단예배,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음,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기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선문적 범음·범패)

◆ 모집 : 수시모집  
◆ 매주강의요일 : 수, 목(오후 4시~6시)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은천동 원광사 회장 겸 경주 김도진 회장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하,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